

소경, 어둠, 죄—무슨 관계가 있나? 보통 사람들은—세상의 눈으로—불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자에게 묻는다. 운명, 생사화복,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. 성서의 등장인물들도 묻는다.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? 질문 속에 이미 답을 담고 있다. 책임전가. 그러나 다시 물어야 한다. 소경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?

A. 소경과 죄

1. 세상의 눈

- 심판. 핸디캡. 질문=> 누구 때문에, 부모의 죄?(출 20:5)
- 처음부터 경쟁에서 낙오=> status quo (지배자의 현상유지, 피지배자의 피해의식=>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없다.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)

2. 다시읽기

-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도록? (그런 축복 당신이나 받지) 그럼, 어떤 의미에서 => 그럼에도 불구하고... (둘 다 신앙고백=> 그 신앙고백이 다시 쓰여져야)
- 낮과 밤=> 생사. 인생. 주어진 삶. 예수는 세상의 빛(1:5, 9; 8:12; 9:5). 낮과 빛이 묘하게 겹치고 연상되는 장면. 단지 시간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, 빛된 예수와의 만남.

B. 지배체제(domination system)와의 갈등, 논쟁

1. 실로암과 자아회복

- 보냄을 받음: 요 3:17(πῶς) << 열왕기하 5장, 나아만과 엘리사 (요단강)
 - 차이점: 실로암과 요단강
 - 공통점: 둘 다 자신의 '믿음'에 의해 고침/나음을 얻음=> 자신을 되찾음. 일종의 세례의식
 -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/선언은 보냄이 필요한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. 그 자체로 현실고발, 비평 (예수의 삶을 요약한 C.C.C. 중 첫번째=> Challenge/confront, Care, Create)
- 예수는 선지자(prophet)
 - 사마리아 여인(4:19); 소경(9:17); 니고데모(3:2) => 신 18:15
 - 모세의 제자 vs. 예수의 제자 (9:28)
 - 자아 회복: 내가 그다=> 나는 나다(9:9, ἐγώ εἰμι ego eimi)

2. 왜 굳이 안식일인가?

- 1세기 유대문화권에서 안식일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징(요 5:9-10; 7:22-23)
 - 성전붕괴 후 회당(synagogue)은 지배체제(공권력)의 상징
 - 출교(9:22 ; 12:42; 16:2).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. 요한공동체 현실 반영.
- 요 9:40. 우리는 소경이 아니지 않은가.
 - 소경은 어둠, 곧 빛이 없는 상태, 혹은 빛을 보지 못함.
 - 예수가 참 빛(8:12; 9:5)이라고 할 때, 소경은 예수를 알지 못함. 바리새인들은 예수로 상징된 새로운 삶, 어둠 속에 들어온(1:5, 9) 빛의 삶을 모름.

생각해 보기

1. 내가 안 보면 (몰랐으면, 힘이 없었으면) 좋았을 것은, 그런 때는?
2. 예수를 통해 내가 지금 (새롭게) 보는 것은?